

“마지막 기회”...리우로 날리는 금빛 스파이크

리우올림픽 종목 ⑫배구

김연경 등 정상급 총 출동

5월 예선서 여자팀 본선행 결정

높이 뛰어올라 상대 코트 위로 강 스파이크를 꽂아 넣는 게 배구의 매력이다. 하지만 그 시원한 장면을 만들기까지 자는 서브, 리시브, 세트 등의 세밀한 동작이 필요하다.

올림픽 정식 종목인 배구는 6인제다. 6명의 선수가 가로·세로 9m의 코트에서 세 번의 터치 안에 공을 넘겨 상대편 코트 안에 떨어뜨리면 된다. 공이 코트 밖으로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공을 건드린 팀이 실점한다.

배구는 1964년 도쿄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1998년 수비 전문 선수인 리베로가 등장해 공격수들이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999년에는 서브권에 구애받지 않고 점수를 올리는 랠리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1~4세트는 25점을 올리는 팀이 해당 세트를 쟁기고, 5세트는 15점을 먼저 얻는 팀이 이긴다. 다만 2점 차가 되기 전까지는 ‘듀스’ 제도로 승부를 연장한다. 먼저 3세트를 따낸 팀이 최종 승리자다.

한국 여자배구는 ‘리우 신화’를 꿈꾼다. 한국 여자배구는 1976년 몬트리올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올림픽 메달을 따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도 5위를 차지하며 배구 강국의 위상을 뽐냈다. 하지만 신장이 월등한 유럽과 중남미 국가에 유리한 수비 전문 선수 리베로, 랠리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한국 배구는 뒷걸음질쳤다.

남자는 이미 세계 정상권에서 멀어졌고, 여자 대표팀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여제’

김연경(28·터키 페네르바체)의 등장으로 한국 여자배구는 다시 세계 정상권에 근접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는 4강 신화를 일궜다. 당시 세계랭킹 15위였던 한국은 미국(1위), 브라질(2위), 중국(3위), 세르비아(7위), 터키(8위)와 B조에 배정됐지만 예선을 통과했고 8강전에서 이탈리아(4위)마저 격파해 36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했다. 3~4위전에서 일본에 패해 메달을 손에 넣지 못했지만, 한국 여자 배구가 다시 세계 정상권에 접근하는 계기

가 됐다.

2016 리우 올림픽은 한국 여자 배구가 메달을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극단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 김연경의 기량은 절정에 올랐다. 국내 최고 센터 양효진(27·현대건설)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김희진(25·IBK기업은행)은 센터와 라이트를 오가며 ‘국채용 선수’의 입지도 다졌다. 여기에 레프트 이재영(20·흥국생명)이 김연경의 부담을 덜어줄 공격수로 성장했다.

아직 한국 여자 배구는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손에 넣지 못했다.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세계 예선에서 아시아 국가(한국, 태국, 카자흐스탄) 중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거나 세계 예선에 참가한 8개국 중 3위 안에 들어야 본선행 티켓을 차지할 수 있다. 세계랭킹 9위인 한국의 본선행 가능성은 큰 편이다. 남자 배구는 리우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놓쳐 4개 대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 배구의 명운은 여자 선수들이 쥐고 있다.

/연합뉴스

“벤치도 상관없다 리우만 보내다오”

리우올림픽 기대주

⑫배구 이재영

‘제2의 김연경’ 주목

상대 수비 분석 탁월

한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성적의 키는 이재영(20·흥국생명)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달성했으나 세계 최고의 공격수 김연경(28·터키 페네르바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한계이자 숙제로 지적받았다.

2014~2015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에 뽑힌 이재영은 ‘수퍼 루키’로 각광을 받으며 그해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배구계에서는 오랜만에 대형 신인이 등장했다며 ‘제2의 김연경’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줬다.

이재영은 키가 178cm로 배구 선수치고는 작은 편이다. 점프력이 유달리 뛰

어난 것도 아니지만 독특한 배경과 남다른 승부욕으로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영은 하드웨어의 약점을 강약 조절과 상대의 수비 위치를 읽고 스파이크를 때려내는 배구 센스로 극복해왔다. 특히 더 잘하려는 ‘자세’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 프로 첫해 수비형 레프트치고는 서브 리시브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부단한 연습으로 올 시즌에는 한층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영은 체육인 2세대. 육상 국가대표 출신 아버지 이주형 씨와 배구 국가대표 세터 출신 어머니 김정희 씨의 장점을 고르게 물려받았다. 중학교 시절부터 주니어 대표 등에 발탁되면서 일찌감치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화려한 국가대표 경력의 이재영은 국제대회 때마다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부상으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그는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번 올림픽에서만큼은 꼭 최상의 컨디션으로 뛰



고 싶다”며 “벤치 멤버로 뛰어도 상관없다. 꼭 필요할 때 들어가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런 역할만이라도 만족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올림픽이 더욱 특별한 것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한 선배인 김연경과 함께 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김)연경 언니와 함께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꼭 결승 무대를 밟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각) 호주 멜버른에서 2016 국제테니스연맹(ITF)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회전을 마친 뒤 정현(왼쪽)이 상대 노바크 조코비치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뜨는 별’ 정현 “우상과의 경기 떨렸다”



호주오픈 1회전 0-3 패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51위·삼성증권 후원)이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현은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회전에서 조코비치에게 0-3(3-6 2-6 4-6)으로 졌다. 지난해 US오픈에서 단식 본선 첫 승을 따낸 정현은 개인 통산 두 번째 승리에 도전했으나 첫 판부터 조코비치를 만나는 불운 속에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정현은 1세트 게임스코어 2-2까지 팽팽히 맞섰고 이후 자신의 서브 게임을 한 차례 내주면서 2-4까지 끌려갔다. 이어진 조코비치의 서브게임을 3-4로 추격했으나 상승세를 살리지 못하고 이후 내리 3게임을 내주면서 첫 세트를 뺏겼다. 2세트에서는 게임스코어 0-4까지 끌려가는 등 세계 최강 조코비치의 벽을 실감해야 했다. 2세트 막판 두 게임을 따내며 전열을 정비한 정현은 3세트에서는 4게임을 따내며 선전

했으나 첫 서브 게임을 내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가 확정됐다.

1회전 탈락 상금 3만 호주 달러(약 2500만원)를 받은 정현은 이날 조코비치의 서브 게임을 한 차례 따냈고 서브 에이스 5개를 기록했다. 조코비치는 정현의 서브 게임 5개를 가져갔고 에이스는 10개를 쏘았다. 서브 최고 시속은 정현이 199km로 조코비치의 198km에 밀리지 않았으나 에이스 개수는 조코비치가 2배였다.

정현은 비록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지만 1세트 초반 랠리 횟수 25회 등 스트로크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1시간55분간 경기를 끌고 갔다. 저도 크게 일을 게 없었던 스무살의 정현에게는 승패를 떠나 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세계 최강’ 조코비치와의 맞대결 소감으로 “조코비치는 실책이 너무 없었고 공이 무거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며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긴장됐다. 대회 메인코트에서 경기를 해 떨렸다”고 밝혔다.

정현은 남자복식 경기까지 치르고 귀국. 2월 초부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1월 22일(금)
▲광주금요산악회 1월 22일(금) 변산 관음봉산행, 광주역(두암동 홈플러스상경유) 08:00 *다음카페 광주금요산악회 ☎ 010 9860 0173, 010 3821 9090

1월 23일(토)
▲동광주밀레산악회 1월 23일(토)~24일(일) 제주도 올레길 및 한라산 눈꽃산행 / 1박 5식(회파리 포함), 산행 참가비 160,000원, 선착순 40명 마감/ 동광주 밀레접 06:30,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LG 베스트샵 06:40, 하남 80M 신한은행 07:00 *다음카페 동광주 밀레 산악회 ☎ 010 3614 5800

▲뉴광주4050산악회 1월 23일(토)~24일(일) 제주도 한라산 눈꽃산행, 월드컵 5:50, 광주역 6:10, 문예후문 6:20, 비엔날레 6:30 *다음카페 뉴광주4050산악회 ☎ 010 9221 4508, 010 8393 791

1월 24일(일)
▲광주거목산악회 1월 24일(일) 부산 갈매길 4-1구간, 광주공원 07:10, 광주역 07:30, 문예회관후문 07:40, 비엔날주

차장 07:50 *다음카페 광주거목산악회 ☎ 010 6612 9584
▲산과희망산악회 1월 24일(일) 전남 구례 견두산 산행, 광주역 08:00, 문예회관후문 08:10 *다음카페 산과희망산악회 ☎ 010 4603 7681

▲광주산가족산악회 1월 24일(일) 전북 무주 덕유산 향적봉 눈꽃 산행, 영주체육관 06:30, 대인광장 06:40, 동광주홈 07:0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 010 6886 9106

▲광주산사모산우회 1월 24일(일) 전북 완주 대둔산(100대명산), 영주롯데마트 주차장 06:3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7:00, 비엔날레 주차장 07:2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7:3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알프스산악회 1월 24일(일) 통영 천개산,백방산산행, 영주체육관 07:30, 대인광장 07:50, 각화동홈플러스 08:00 산행후 목욕준비 *다음카페 광주알프스산악회 ☎ 010 8743 8244

▲광주요산회 1월 24일(일) 지리산 톨레길테마산행 "제3탄" (제4,5구간), 무각사 06:30, 문예정문 06:35, 광주역광장 06:50, 동광주 홈 07:00 *다음카페 요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7

▲광주차오름산악회 1월 24일(일) 제8차 완도 조약도(약산도)삼문산(397m) 조망산행,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7:00, 롯데백화점 07:10, 광주시청 07:25, 하남 무등산랜드 앞 07:40 *다음카페 광주차오름산악회 ☎ 회장 010 3185 4435, 산행 이사 010 4615 5810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월 24일(일) 괴음산-송등산-호구산(경남 남해군), 영주체육관 07:40, 무등경기장 08:00, 동광주홈플러스 08: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 010 3666 3291, 010 5658 0185

1월 30일(토)
▲철도산악회 1월 30일(토) [무박2일] 무궁화호타고 떠나는 태백산등반·하이원스키장투어 기차여행 광주역 23:00 출발 *다음카페 철도산악회 ☎ 515 7788, 010 9715 1000

1월 31일(일)
▲문흥백두산악회 1월 31일(일) 진안 구봉산(국내최장구름다리), 문흥동백두산악매장 07:30, 북구미래야동병원 07:35, 일곡동우체국 07:45, 비엔날레주차장도로가 (구도교육청앞도로) 08:00 *다음카페 문흥백두산악회 ☎ 010 3602 2098

▲광주효사랑산악회 1월 31일(일) 인제

방태산산행, 식자재마트 03:10, 해태아파트 03:20, 영주육교길 03:30, 무각사 03:40, 문예회관후문 03:50, 비엔날레 04:00 *다음카페 광주효사랑산악회 ☎ 010 7725 1353, 010 3618 0967, 010 3606 2021

▲광주요산회 1월 31일(일) 천안 위례산성주산, 무각사 06:30, 문예정문 06:35, 광주역광장 06:50, 동광주 홈 07:00 *다음카페 광주요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7

▲광주청정산악회 1월 31일(일) 월출산산행, 영주체육관 07:20, 봉선동 한일병원 07:30, 산수오거리 07:35, 광주역/앞 07:40, 운양동(문화예술회관)후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08:00 *다음카페 광주청정산악회 ☎ 010 2798 3994, 010 8627 9945

2월 6일(토)
▲광주금당산악회 2월 6일(토) 국립공원 무등산, (집결지)-증심사 시내버스 종점 위 팔각정 09: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2월 17일(수)
▲광주산사모산우회 2월 17일(수)~21일(일)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1,130,000원), 영주롯데마트 주차장 10:0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10:30, 비엔날레 주차

장 10:5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11:0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2월 20일(토)
▲광주금당산악회 2월 20일(일) 군산 새만금 월영산-대각산 (시산제 점삼제곡),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후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2월 21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2월 21(일) 부안

주주총회 소집공고
당사 정관 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2월 3일 11시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신안동)364-1번지(4층)
2. 장 소 : 본사 사무실.
제1호안 : 회사 경영상 문제점
제2호안 : 정관15조2항에 관한 건.
4. 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경우에는 주주 본인임을 확인 할수 있도록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위임 받은인 대리인은 대리임을 확인 할수 있도록 위임장과 주주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주주 총회 의장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66(신안동364-1번지)
주식회사 호남에일신문사
대표이사 김주수

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심판
• 사건번호 : 2016노단2 상속한정승인
• 사 망 자 : 이만재(310207-XXXXXX)
• 최후주소 :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518
• 등록가족지 :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중출발 37-34 위 망 이만재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6년 1월 19일
• 공고인 : 이종학,이광자,이월란,이장미,이종대
• 한정승인승리일 : 2016년 1월 13일
• 공고기간 : 2016. 1. 19. ~ 2016. 3. 18
• 신 고 처 : 이종학(010-3649-2565)

LOTTE CINEMA |총창로관

1관	그날의분위기
2관	몬스터호텔2/설록유령신부/바다의노래
3관	내부자들 : 디오리지널
4관	구스범스/굿다이너
5관	히말라야
6관	레버넌트/잡아아산다
9관	레버넌트/구스범스/굿다이너
7관씨네키움	예술루트리에니성/그날의분위기
8관씨네키움	나를잊지말아요

단체 및 대관문의 : 070-4940-0523

MEGABOX |하남점 메가박스

현재상영작	금주개봉작
히말라야	레버넌트
굿다이너	오빠생각
내부자들 : 디오리지널	
레버넌트 : 죽음에서 돌아온 자	
나를 잊지 말아요 / 겹겹이 메달 / 구스범스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십 본인 1000원 할인 현대M포인트 1인 2000포인트씩 2인까지 4000포인트 사용 (현대M 카드로 결제시 적용)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누르고-6-6-1-4-99대별로 안내를 따라가면 누르세요	

MEGABOX |상무점 메가박스

1관	설록 : 유령신부
2관	레버넌트/히말라야/바다의노래
3관	레버넌트/예술루트리에니성
4관	히말라야
5관	굿다이너/그날의분위기
6관	그날의분위기
7관	내부자들/장구는 못말려극장판
8관	나를 잊지 말아요
9관	내부자들 : 디오리지널/포인트브레이크
10관	구스범스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